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제16대 장로 선거 일정 안내

제16대 장로 선거 후보 10명 선출을 위한 제직회 - 5월 7일(주일) 찬양예배 후
제16대 장로 5명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 5월 21일(주일) 찬양예배 후

5월 7일(주일) 제직회에서 16대 장로 선거 후보자 10명을 추천하기 위한 장로 선거 예비후보자 303명의 명단이 오늘 순례자 별지로 공고되었습니다.

서울교회 장로 예비후보는 현재 서울교회 교적에 예배 출석자로 분류된 안수집사, 권사를 대상으로 하며(당회에 예비후보 사퇴를 요청한 4명 제외), 운영규정 제5조 3항에 따라 최소 시무기간이 2년 이상 남지 않은 1953, 1954년생 안수집사와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중 40세 이하인 1983년 5월 20일 이후 출생자는 제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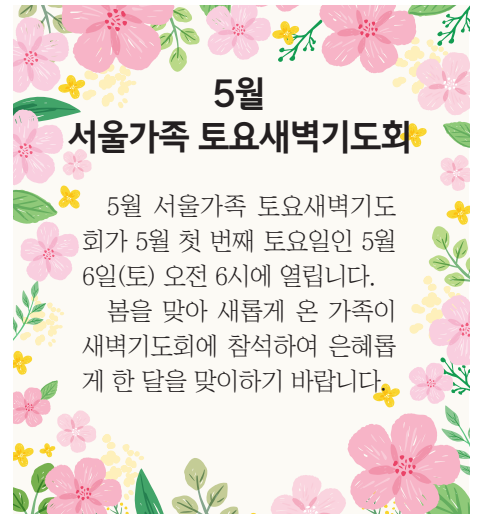
5월 7일 제직회에서 선출될 10명의 장로 후보는 5월 14일(주일) 순례자에 득표순, 임직순, 연령순에 따라 후보 번호가 정해져 발표됩니다. (10명 중 개인 사정 상 사퇴자가 있을 경우에는 역시 득표순, 임직순, 나이순으로 차순위자를 올려 10명

을 채웁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배수 공천된 후보자 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이 선출되도록 1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한 후 5월 21일(주일) 찬양예배 후 열리는 공동의회에서 5명의 장로를 선출합니다. 장로 선출 방법은 공동의회 1차 투표에서 총 투표수의 2/3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그 숫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득표순, 임직순, 나이순으로 5명만 채택합니다. 또한 2/3 이상 득표자가 5명 미만일 경우에는 곧바로 2차 투표를 실시하되 득표순대로 번호를 다시 부여합니다.

제직회 이후 배수 공천된 후보들의 선거 운동은 허락되지 않으며, 적발될 시 후보자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이 장로로 선출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5월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

5월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가 5월 첫 번째 토요일인 5월 6일(토) 오전 6시에 열립니다. 봄을 맞아 새롭게 온 가족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은혜롭게 한 달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2023 경로잔치

소망부(부장:백도환 안수집사)가 당회의 후원을 받아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어르신들을 잔치에 모시려고 합니다.

소망부와 은빛찬양대, 사라전도회 및 아브라함선교회 어르신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5월 3일(수) 오후 12:30
- 장소 : 서울교회 8층 만나홀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준현 권동영 김중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문영훈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안중호 소위 백승규 중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규 소령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2021년, 15대 장로 선출을 위한 제직회 모습



2023 봄 성경대학 종강

지난 4월 27일(목) 2023 봄 성경대학이 종강하였습니다. 이번 성경대학은 히브리서 반(조원영 목사)과 시편 반(현종필 목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함께 탐구하는 시간이었으며 시편의 대표적인 시들을 중심으로 히브리

- 히브리서 반 (33명) -

강은경 김경자 김애리 김양숙 김찬진 김혜란 나현주 남태영 노애리 백난희 석상화 송명원 송미령 위성남 유묘중 이상섭 이선희 이옥수 이은희 이정하 전금수 전주주 정금희 조정옥 주화인 지성철 차영도 최재련 채교천 채형숙 채혜숙 허숙 홍석현

시의 전반적 특징과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시편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열심으로 강의를 준비하시고 진행해 주신 담당교역자분들과 배우는데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편 반 (16명) -

차영도 채교천 허숙 전인숙 김종태 남태영 위성남 김찬진 최형열 최중희 나현주 허미옥 송미령 이경선 서정현 정금희

더 깊은 생각, 더 성숙한 신앙

(요 3:1-8)



손달익 위임목사

본문은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대화를 시작으로 니고데모는 주님과 열린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훗날 십자가 사건 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의 일생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서 바른 생각과 바른 사고가 가져온 거룩한 변화의 모습을 보고 느끼며 우리도 아리마대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바르게 생각하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살펴보고 그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 초기로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 2:13 이하에 기록된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을 목도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한 끝에 어두운 밤에 홀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주님께 저항하며 크게 적대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팔고 돈을 바꾸면서 폭리를 취하는 이 일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을 비판하고 도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등을 두고 깊이 생각한 결과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판단하고 밤중에 주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정치인들의 선동이나 백성들의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진실에 기초하여 냉정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고는 이성과 양심과 신념이 함께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결론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이 세 가지의 밑바탕에 성령의 감동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성도 양심도 신념도 모두 성령의 다스림 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 51:10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빌 4: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진리 편에 서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합리적이며 정직하게 판단하도록 늘 생각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에 얽히거나 세속적 가치를 판단의 중심으로 삼거나 감정의 격랑에 휩쓸리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영적으로 생각하라

자기 생각의 결론을 밝힌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칭찬하시거나 찬성하시는 대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3절)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4절). 주님은 그에게 더 어려운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5절) 그리고 결론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6절).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가 태어날 수도 없지만 설혹 그렇게 다시 태어난다 하여도 그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

라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8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의 근원은 알기 어렵고 바람이 가는 곳도 모르지만 바람은 소리와 흔들리는 표적을 남깁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도 인간 오감으로는 분별이 어렵지만 그 역사하심의 결과들은 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육신적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표면적 결과,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철저한 삶을 살고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생각을 해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고방식이어야 한다면 두 번째 사고방식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반지성적으로 생각하거나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성숙하게 생각하라

이날 예수님을 만나 영적 세계에 눈 뜬 니고데모는 그 후에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열정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 7:45 이하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지도부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로 내부적으로 격론을 벌였는데 이때 니고데모가 등장하여 이 일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요 7:50-51) 그는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유익하며 어떤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인지를 깊이 생각했고 이 절대 위기의 순간에 자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타난 것은 요 19:39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장례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예수님의 마지막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으며 공개적으로 제자의 행보를 하였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생각은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논리에 밝고 바르게 말하고 논쟁을 아무리 잘 해도 자기희생을 각오한 헌신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는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5)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도록 성숙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은 그 생각이 자라가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언제나 진실과 양심을 따라 바르게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오직 구원 받은 사람의 신앙으로 예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성숙한 신앙인의 생각은 모든 사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 자기 책임에 매우 민감하고 성실합니다. 우리 모두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철저한 삶을 살고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생각을 해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양미숙 권사
(6교구)

지난 4월 21일(금), 에스더전도회의 4월 월례회는 손달의 위임목사님을 모시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손 목사님과의 간담회에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컸지만 회원들의 정성 가득한 섬김의 모습에서 전도회원 모두 이 모임을 그동안 많이 기다리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는 입장에 있다가 평소 목사님께 궁금했던 점을 여쭙어 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는 목사님의 서울교회에 대한 비전, 지금까지 목회활동 중 가장 기억나는 점,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등 저희들이 드린 질문에 진솔하고 담담하게 때로는 위트있게 답해주셨습니다.

손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위해 들이는 노력을 말씀하실 때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살아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목사님께 주셨다는 잠언 3:4의 "그리하

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앞으로 남은 손달의 위임목사님의 목회를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 참석자**

백경화 황금선 박미정 박정희 김경자 오용이 한명자 박영실 박민숙 임미경 양미숙 박혜정 송미정 나현주 오현숙 전인숙 송희숙 최정숙 허경화

총 19명



부흥의 선봉장, 7교구!



하상영 안수집사
(7교구 간사)

지난 22일(토요일) 7교구(교구장:김혜인 장로)는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30명의 교구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야외예배를 가졌습니다.

김익환 목사님이 '부흥의 선봉장이 되는 7교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각자에게 주어

진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7교구는 인천부터 한강 남서부를 포함하며 수원까지 지역이 넓으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다락방 식구들 간 카풀을 활용하여 잘 모일 수 있었습니다. 송도지역 다락방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수옥 권사님이 준비한 코스에 따라 예배 후 센트럴파크 산책과 전망대 구경 후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탁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날씨에 대한 걱정을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야외예배 때는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산책할 때는 해

를 보여주셔서 화창한 날씨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여름에 있을 전교인수련회와 체육대회 때 다시 모일 것을 독려하며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체사진으로 추억을 기록한 후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행사가 많은 4월이었지만 교구식구들이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함께해 주셔서 야외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 7교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기로 정하다



존 로스
(John Ross)



이수정



언더우드
(Horace Grant Underwood)



제임스 게일
(James S. Gale)



주시경 선생

성서번역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신명, 즉 “신의 이름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이다. 성서를 번역할 때는 당연히 본토인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기독교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신학적으로 복잡한 개념인 기독교의 신을 번역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각 나라에는 고유한 종교 전통과 독특한 신에 대한 개념이 있다. 따라서 이런 전통적인 신 개념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을 배제하면서 신의 이름을 번역할 것인가는 언제나 성서번역자들 사이의 심각한 토론거리였다.

동아시아 3국의 성서를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모두 신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일본은 ‘신님’을 뜻하는 가미사마(神)를 사용하고, 중국은 기독교는 상제(上帝)를, 가톨릭은 천주(天主)를 주로 사용한다. 한국은 현재 종파나 교파에 따라 하나님 또는 하느님을 사용한다. 모두 종교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이 다르게 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를 더 살펴보면 가톨릭과 정교회, 성공회는 하느님을 사용하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용한다. 가끔 하나님과 하느님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질문에 ‘하느님’은 하늘의 계신 신을 의미,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대답을 보곤 한다. 이는 100점 만점에 약 20점 정도의 대답이다. ‘하나님’이라는 신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번역자의 의도에서 가장 잘 알 수 있

다. ‘하나님’이 정착되기까지 성서번역자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를 통해 알아보자.

가장 먼저 성서를 번역한 스코틀랜드 장로회의 존 로스 선교사는 신의 이름으로 하느님과 하나님을 모두 사용했다. 하지만 모두 ‘하늘’과 ‘님’의 합성어로 아래아(·)의 표기를 달리한 것이었다. 이 번역은 원시 유교와 도교의 신인 ‘상제’(上帝, 최고의 지위를 가진 하늘의 신)에서 착안한 번역으로 ‘상제’에는 최고와 창조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자가 같은 상제(上帝)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일본에서 성서를 번역한 이수정은 ‘신’(神)을 사용하였다. 일본 성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수정은 기독교에 귀의한 직후부터 성서를 번역했고 별도의 신학공부를 한 적은 없으므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한 선교사들은 이수정의 ‘신’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귀신과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대신 로스의 ‘하나님’을 받아들여 서울식 표기인 ‘하느님’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선교사가 있었다. 언더우드였다. 언더우드는 ‘하느님’은 한국의 다신교인 무교의 최고신이기 때문에 천주(天主), 상주(上主), 천부(天父)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주’를 사용한다면 가톨릭, 성공회, 기독교 사이의 연합사업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 언더우드와 다른 선교사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어 성경번

역이 지체되었다. 논쟁이 시작된 1895년부터 10년 동안 선교사들은 신명의 번역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언더우드가 ‘하느님’을 수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게일 선교사의 한국어 연구였다. 게일은 한국의 언어와 정신문화에 매력을 느끼고 한국의 문화를 깊이 연구했다. 게일은 한글 학자인 주시경의 도움을 받아 ‘하늘’의 어원에 서 하늘(天), 한(大), 하나(一)의 의미를 찾아냈다. ‘하느님’에는 하늘의 초월성과 한의 위대성, 하나의 유일성이 모두 담겨있다는 것이었다. 게일은 서양을 포함한 여러 민족들의 신명과 비교해도 조선의 ‘하느님’이 가장 하나님의 속성을 잘 담아내는 이름이며 한국의 전통문화가 서양문화보다도 더 성경의 문화와 밀접하다고 생각했다. 언더우드도 삼국시대의 건국신화를 연구하면서 “고대 한국에 계시로 주어진 하느님에 대한 원시 유일신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1904년 ‘하느님’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느님’은 1912년 조선총독부의 “언문철자법”과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아래아(·)가 폐지되면서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듯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신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우주의 주재자이며,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며,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3 성경암송대회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5-17)

지난주 우리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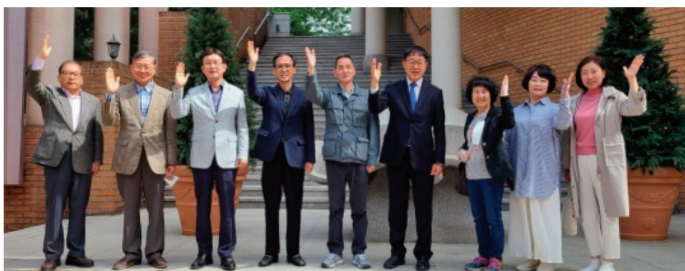


지난 4월 27일(목)에 2023년 봄 성경대학이 종강하였습니다. 좀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 열의를 다하신 부목사님과 배움의 열의를 보여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나전도회(회장:김서윤 권사)는 4월 21일(금) 국립수목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경건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코로나 후유증을 다 날려버리듯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며 함께 한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나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으로 풍성히 진행되어 감사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회복되고 70인 전도대의 적극적인 전도활동이 전개되어 본연의 전도회 역할을 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한나전도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 : 15)



4월 22일 토요일 노방전도 (모세선교회)



4월 26일 수요일 노방전도 (리브가전도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순례자를 읽고 마음이 열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 봄학기 모집

교육위원회(위원장:김혜연 장로)는 문화 나눔, 말씀에 기반한 찬양문화의 형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 문화를 고취하고자 열린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수강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학기 운영 : 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 23년도 봄학기 : 4. 15(토)-6. 18(주일), 10주
- 운영비 : 각 클래스당 월 15,000원 (3개월:45,000)
- 문의 및 신청 : 남재은 집사(010-9189-8019)

구 분	요 일	시 간	과 정	장 소	강 사
클래식 기타 합주	주일	12:40	10주	505호	장윤식 안수집사
통기타	주일	13:50	10주	505호	박민서 안수집사
	토요일	10:00	10주	505호	
베이스 기타	토요일	11:30	10주	505호	김상운 선생
드럼	토요일	13:00	10주	101호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요일	14:00	10주	505호	최명아 선생
기초연기	토요일	토, 오후 7시	10주	701호	박재현 배우(한예종 출신)

성도 동정



- 독주회 : 7교구 전지희 선생 (주일 1부예배 오르가니스트) 5월 3일(수) 12시 20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

득녀



- 김예지 전도사(고등부 지도)·박성민 전도사 득녀

식사 제공

- 3교구 여성옹 안수집사·김혜영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드리며)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5월1일	월	왕하 18-19		렘 33-40	
5월2일	화	왕하 20-22		렘 41-49	
5월3일	수	왕하 23-25		렘 50-52	
5월4일	목	대상 1-2		애 1-5	
5월5일	금	대상 3-5		겔 1-11	
5월6일	토	대상 6		겔 12-17	
5월7일	주일	대상 7-8		겔 18-23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랑과 섬김, 순종과 헌신의 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대로 배어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2. 70인전도대와 전도회, 선교회, 권사회가 함께 하는 노방전도 현장에 성령의 역사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 회복의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3. 십자가 복음 위에 통일된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튀르키예를 비롯한 재난과 고난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의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지열 안인호 최형열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